

동 · 물 · 학 · 논 · 단

韓國産 벌目の 연구사



金昌煥(奎山)

- 1943~1945 일본 동경제국대학 농학과
- 1958~1959 영국 Cambridge 대학교 동물학에서 연구
- 1959~1985 고려대학교 교수
- 1980~1983 고려대학교 대학원 원장
- 1966~1968 한국동물학회 회장
- 1973~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1978~1984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
- 1985~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韓國産벌에 관한 學術的研究는 러시아의 O. Radoszkowski가 Hymenopteres de Coree란 題目으로, 朝鮮朝末期인 1887년에는 뒤영벌 *Bombus koreensis*라는 1신종과 1신아종을, 또 1890년에는 호리병벌 *Discoelius zonalis* 등 3종과 가위벌 *Megachile koreensis*의 1신종을 발표한 것이 효시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885~1888년에 걸쳐 J. Kalinowski는 한국산 벌목(膜翅目) 곤충을 채집했다고 하고 1904년에는 N. Kokujev가 Hymenoptera asiatica nova란 題로 어리몽툽시벌 *Exetastes*屬의 2신종과 1신아종을 발표했다.

1904년 露日戰爭도 끝나고 1905년에 乙巳保護條約 체결로 日本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日人들의 韓國으로의 진출이 많아졌고 그리하여 駐韓日人 학자로서 Doi (土居寬暢 : 科學館, 꿀벌, 기타 벌들), Saito (齋藤孝藏, 水原高農, 森林害蟲), Sato (佐藤 覺, 잎벌), Takagi (高

木五六, 林業試驗場, 기생봉), Mori (森 爲三, 京城大 豫科, 昆蟲一般), Okamoto (岡本半次郎; 農事試驗場, 나무벌) Nakayama (中山昌之介, 農事試驗場, 기생봉) 등의 韓國産벌에 관한 논문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한국산 벌의 각 부류에 관한 연구는 日本居住昆蟲學者들에 의해 日本산과 함께 연구되어 왔다. 그 중 중요한 학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atsumura (松付松年; 벌 일반), Uchida (內田登一; 맷시벌), Yasumatsu (安松京三; 사냥벌류), Teranishi (寺西 暢; 개미), Takeuchi (竹內吉藏; 잎벌), Watanabe (渡邊千尙; 고치벌), Tsuneki (常木勝次; 구멍벌, 철벌), Hira-shima (平山鳥義宏; 꽃벌), Muramatsu (村松茂; 잎벌), Tosawa (戶澤信義; 청벌, 호리병벌), Togashi (富堅一次; 잎벌), Kamiya (神谷一男; 기생봉), Katayama (片山榮助; 알락꽃벌), Yana (矢野宗幹; 잎벌, 개미, 기생봉) 등이다.

일본인 이외의 학자에는 W.M. Wheeler (1906, 개미)와 N. Karawajew (1912, 개미), H.W. Allen (1930, 굼벵이벌), R.A. Cushman (1931, 고치벌)과 A.S. Skorikov (1933, 뒤영벌) 등이 있다. 그 밖에 굼벵이벌을 채집해 간 D.T. Fallaway (1923)와 L.B. Parker (1930~1933), R. W. Burrell (1932~1933)과 C.P. Clausen (1922) 등이 있다.

8.15光復이 되면서 筆者는 주로 한국산 맷시벌의 분류학적 연구에 손을 댔다.

그리하여 1955년 高麗大 五十周年記念論文集에 실린 “한국산 맷시벌科에 관한 研究”라는 논문에서 6新種을 포함한 맷시벌 191종을 발표했고 1957, 1958년에도 맷시벌을 취급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Yano (1931, 1953), Yasumatsu (1937), Uchida (1935) 등에 의해 한국에는 *Vespula* (땅

벌 속)가 6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채집되어 있는 많은 표본을 조사하였으나 그중들을 찾아내지 못하여 땅벌집 하나하나의 구성원 전체를 조사하였다. 1956, 1957년에 걸쳐 전국의 47개 땅벌집에서 여왕벌 13,108마리, 일벌 41,030마리, 숫벌 23,020마리 합계 77,158개체를 얻어 그들의 판문의 패턴을 조사하여 통계를 내보았다. 그 결과는 “社會性벌의 變異에 관한 研究” 제1보 (대한생물학회 생물학회보 1권 1호, 1956)에 발표했고 또 그린 무늬의 패턴에는 생리적, 지리적인 cline이 있음이 판명되어 결국 남한에는 *V. austriaca*, *V. germanica* var. *flaviceps*, *V. rufa* var. *schrenckii*는 없고 일본산인 *V. lewisii*도 아니고 구북구종인 *V. vulgaris* L.라고 당시로는 생각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제2보로 高麗大學校文理論文集 제4집 (1959)에 실렸다. 그러나 근년에 *V. flaviceps*임이 밝혀졌다.

한편 1959년까지 한국산 벌을 다룬 기발표문헌을 가능한한 조사하여 260편의 문헌목록과 기 발표된 벌 854종 (넓적허리亞目 167종과 호리허리亞目 687종)의 list를 “한국산 벌”이란 제목으로 高大文理論集 理學部篇6輯 (1963)에 발표했다.

그 후 1970년에 文教部刊 “한국동식물도감 11권 곤충류 III (벌편)”과 1980년에 고려대 출판부 발간 “Distribution Atlas of Insects of Korea, Series III”에서 한국산 벌을 취급했다.

한편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高濟鎬씨는

1966년경에 솔잎혹파리에 기생하는 먹좀벌류에 또 崔承允교수는 양봉에 관해 연구하였다. 국외에서는 B. Tkalcu (떡벌), Sh.F. Sakagami (坂上, 뒤영벌)의 연구가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新進學者들이 배출되었다. 李鍾郁 (맷시벌), 金兵珍 (개미), 朴重錫 (고치벌), 金美良 (꿀벌), 白鐘哲 (좀벌), 金貞圭 (호리명벌) 등 여러 학자가 현재 활동중에 있고 일본에서는 M. Ito (伊藤誠夫, 뒤영벌)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 동정되어 온 뒤영벌에 필자와 M. Ito는 공저로 남한에 13종, 북한에 7종이 있음을 밝혔다 (한국곤충연구소 연구보고 제13호, 1987).

그리하여 1994년에 한국곤충학회와 한국응용곤충학회가 발간한 “한국곤충명집”에는 Symphyta 214 spp, Apocreta 1684 spp., 총계 1898종이 수록되고 있다. 금후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부류를 연구하고 더욱이 남북이 통일이 되어 북한산벌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종이 추가되리라고 본다. 한국산벌은 아직도 연구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류가 많으니 많은 신진의 배출이 요망되지만 현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 활동중인 학자들이 연구영역을 넓혀 미개척분야를 커버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농약살포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벌종류가 많아서 야생충매화가 감소하고 또 기생봉, 수렵봉의 감소로 평형유지 파괴와 생물다양성보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산 벌류의 종파악이 시급을 요한다.